

본문은 역사적 시각으로 미국과 중국을 안에 포함하는 아시아 국가와 인민 세력의 경쟁으로부터 1996년 4월 체결된 확대된 미일 안보 조약의 몇 가지 책략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동시에 일본 인민, 전구화인의 미일 안보 조약 制衡작용에 대한 각성을 분석한다.

1. 21세기는 아시아가 일어나는 세기

李光耀선생은 최근 "21세기의 아시아는 세계사상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과거 30년의 발전은 동아시아 인민 -- 중국인을 안에 포함하는 -- 에게 미래에 대해 낙관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고 말하였다. 같은 논문은 눈앞의 경제 성장률을 추산한 것을 근거로 25년 후인 2020년에 이르면 동아시아의 국내 생산 총액(GDP)은 구매력으로 평가하여 계산하면 전세계 국내 생산치의 40%, 북미는 18%, 유럽 연합은 14%를 점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중국은 동아시아의 대국이기 때문에 급후에 중대하고 예견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하여 중국이 재차 혼란, 분열 혹은 군벌 할거의 국면이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2010년에 중국의 총GDP는 미국을 따라잡고 심지어는 미국을 초과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으로 하여금 상당히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의 근심거리는 중국이 미국에 주어진 두드러진 지위(패권)를 놓고 다툼을 할 때 그들은 어떤 세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광요는 또한 경제 지위의 변화는 관점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였다. 1가지는 더욱 자신을 가진 중국의 출현은 불가피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1996년 3월 중공은 대만 해협에서 미사일 연습을 진행하였다. 4월 클린턴 대통령과 橋本龍太郎은 종종 확대된 미일 안보 조약을 체결하였다. 6월 미국 양당은 공동으로 중국에 최혜국 대우를 할 것을 지지하였다. 7월 일본 우파와 군국주의가 대두하여 조어 사건을 만들어 전구화인이 공농 보조를 맞추어 조어태 보호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러한 역사 조건하에서 연출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사이의 힘의 경쟁이다.

2. 미국은 결코 아시아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중국은 몇 번이나 참고, 양보한 뒤 마침내 1996년 3월 대만 문제에 비장의 카드를 꺼내었다. 미사일 시험 사격은 중공이 高雄을 봉쇄하고 基隆을 봉쇄할 역량을 가지고 있어 대만 해협을 봉쇄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급박한 정책은 야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 일본과 대만 독립 분자들에게 경고한 것이다. 중국은 대만을 회수할 결심과 능력이 있다! 이러한 비장의 카드를 한 번 내놓음으로써 미국은 정신을 차리고 현실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클린턴은 비록 표면상으로는 대대적으로 일을 벌여 함모 「니미츠호」와 「인디펜던스호」를 파견하여 태평양에 진입하여 대만 「보위」를 명분으로 재차 「포함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이봉의 경고 하에 「니미츠호」는 감히 대만 해협으로 향진하지 못하고 먼 거리에 정박하여 관망하고 있다. 비록 미국 국방부장관 페리는 "우리들은 결코 아시아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큰 소리로 떠들지만 사실상 이번 에 미국과 중국간의 대치 중에는 기회를 엿보면서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고 있다. 이는 <<축약시보>>의 반중국분자가 급해서 발을 동동구르게 하여, 미국의 조약이 대만이라 하였다. 중국과 개전이 필요한지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지와 같은 진지한 문제는 즉시 미국인이 직면하도록 요구하였다.

3. 중국과 냉전을 하는 것은 값비싸고 매우 위험하다

Steven Erlanger 는 1996년 2월말에 <<죽약시보>>에서 <중국식냉전예상 : 비싸고 위험하다> (Chinese Cold war Forecast: Costly, Dangerous, N.Y. Times 2/25/96) 라는 장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논문은 다시 중국과 냉전 혹은 열전을 할 수 없다고 역설하였다. 첫째로 미국은 냉전 시대의 과실을 순조롭게 받아들인 후 어쩔 수 없이 군비를 삭감하고 경제를 발전시켰으나 다시 한번 국방비용을 대량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두 번째로 미국이 일단 중국에게 준 최혜국 대우를 중단하여야만 하며, 미중 양국의 교역 무역도 곧 중단될 것이다. 셋째로 중국과 냉전을 하는 것은 미국과 기타 아시아 국가로 하여금 심각한 불일치를 낳게 할 것이다. 일본은 미국과 중국간의 양자 중 택일을 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다. 미국은 싱가포르와 태국 심지어는 남한에서도 심각한 불일치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넷째로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의 부결권을 사용하여 미국은 곳곳에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다섯째로 중국은 핵무기 확산과 화학무기 상에서 미국을 방해할 수 있을 것이다.

클린턴의 막료들은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중국을 억제하는 데 최대의 난점은 미국이 이미 아시아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정책을 집행하는데 도움을 줄 하나의 우방국도 없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일단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려고 하면 미국은 곧 일본, 한국과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마찰이 일어났으며 오스트레일리아는 말할 필요도 없다. 소련을 억제하는 정책에서 미국은 도움을 주는 많은 동맹국이 있었다. 資深白宮막료는 “ 이것은 우리들이 매우 좋아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중국과 진행하는 건설적, 전면적인 접촉이 너무 이른 것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우리들이 바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아직도 유일하고 비교적 실제적이며 합리적인 정책이다. 미국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논하지 않고 억제하는 것도 좋다 전면적인 대화도 좋다는 것은 모두 중국이 하나의 비교적 중요한 대국이 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말하였다.

클린턴의 [모호한 정책]은 중국에서 비장의 카드를 꺼낸 후 곧바로 명료하게 되었다. 1996년 5월 국무장관 크리스토퍼는 첫 번째로 대중국 정책의 강연을 발표하여 중국과 전면 대화하고 더욱이 중국 고위층과 접촉할 것을 주장하였다. 6월 중국에 최혜국 대우를 지지할 것을 선포하고 아울러 대선 후 중국을 방문할 것을 선포하였다.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은 3개의 公報까지 되찾는다는 것을 원칙상으로 승낙하였다.

4. 이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한 확대된 미일 안보 조약

미국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구와 소련이 해체된 후 본래 홀로 세계의 패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좋은 꿈은 흥기하는 아시아와 독립적으로 날로 강대해지는 중국에 의해 분쇄되었다. 미국의 정치 위원과 매체는 중국에 대해 한가지 정론이 있다. “그녀(중국)는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 않는다” 냉전 시대 후기에 의식 형태, 인권 문제, 핵무기 확산 문제, 무역, 제해권, 환경문제 등을 불문하고 중국은 모두 거의 유일하게 미국과 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또 절대다수의 발전하는 국가가 지지하는 국가가 되었다. 미국이 가하는 각종 참전에 대해 중국은 감히 노신이 말한 [화가 나서 눈을 부라리며 냉대하는] 것과 같이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항하였다.

아시아에서 중국은 미국이 다시 옛날의 업적을 되찾고 대만이 중국을 분열시키는 방패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미국은 아시아의 새롭게 일어나는 시장을 보면서 클린턴은 “미국도 하나의 태평양 국가다”라고 말하고 역지로 개입하면서 아시아에서 물러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일 안보 조약은 곧 이러한 역사적 조건의 산물이다. 1996년 4월 클린턴은 황급히 동경으로 날아와 교본용태랑과 확대된 미일 안보 조약을 체결하고 [21세기의 연맹] 이라는 제목으로 미일 선언을 발표하였다.

확대된 미일 안보 조약 결국 미국이 일본 군국주의 분자에게 중국을 억제(Contain)할 것을 종용하려 한 것이며, [아시아인으로 아시아를 제어한다]는 수법임이 분명하다.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중국과 싸우는 것으로 곧 [중국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책속에 지적한 미국이 유사 이래 첫 번째로 승리할 수 없었던 전쟁은 동반자가 중국의 인민군대인 전쟁이라는 것과 같다. 한국전쟁과 월남 전쟁은 미국에게 두려움을 주었다. 근년에 와서 미국이 자화자찬한 걸프전

쟁에서의 승리는 사막 지대의 특수 지형에 의지하여 수준높은 과학기술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전쟁 방법은 절대로 중국 혹은 아시아 지역에 다시 사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해방군을 두려워하며, 게다가 미국 국내에서는 해외 전장에 파병하는데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어 미국이 중국을 침략하려는 것은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200여 명의 미국 병사가 걸프전쟁중에 화학무기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발견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침략자의 創傷을 드러내었다. 이로 인해 확대된 미일 안보 조약을 기록하고 일본 군국주의의 야심을 차용하여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는 하나의 [上策]을 만들었다.

미일 확대 안보 조약의 내용은 印鐵林의 보도에 의하면 두 가지가 있다.

갑 : 적용된 지리범위상에서 : 과거 안보 조약은 단지 일본이 외국의 공격을 받을 때에 응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으로 방어적인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신 조약은 적용 범위를 [주변 국가]까지로 확대하였다. 도대체 몇 킬로미터 이내를 [주변 국가]라고 하는가? 당연히 무법적인 정의이다. 소위 [주변 국가]는 확연하게 미일의 이익에 관계 있는 동아시아 지역과 국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은 원래 [방어적]인 안보 조약이 [적극적인 참여]로 확대되어 공격적인 성격으로 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을 : 미일 합작의 구체적인 내용상에서 : 구 조약의 주요 규정은 일본이 미군의 수요에 대하여 [물질과 후방근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신 조약의 규정은 일본이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채용한 행동에 동반자가 되고 또한 군사 기술상에서 미일이 정보를 교환한다. 이것도 간단하고 정태적인 후방 지원 관계가 전면 군사 행동의 합작 동맹으로 확대되고 아울러 신무기의 공동 연구 제작에 이르러서는 관계가 일반 군사 동맹을 넘어서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일 확대 안보 조약은 미국이 적극적인 동아시아 전략 부서의 하나의 포석이다.

5. 일본 인민은 미군 기지에 반대한다

류구(오키나와)거주민을 우두머리로 하는 일본 인민은 지난 일년 전부터 미군 기지에 반대를 하는 데시위가 매우 많았다. 1996년 9월 8일에 류구거주민은 10대1의 투표로서 유구에서의 미군 기지의 대량 감소를 요구하였다. 유구 정부는 주장관 Masahide Ota의 영도 하에 적극적으로 유구 공민을 동원하여 이러한 역사적인 투표에 참가하도록 하였는데, 이 투표 결과는 실제적으로 워싱턴과 동경 정부에 대해 하나의 경고가 되었다.

1995년 유구의 12살난 여학생이 3명의 미국 병사에게 납치되어 운간당했다. 이 범죄 사건은 유구 거주민을 크게 분노케 하였으며, 미군 기지를 반대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유구 거주민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두시위를 하고 세명의 병사가 심판과 형을 선고받도록 요구하였다. 클린턴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구 거주민이 오랫동안 미군 기지와 미국 군인에 대한 원한이 마침내 폭발한 것이다.

유구가 비록 일본 토지의 백분의 일을 점한다 하여도 오히려 백분의 칠십오의 미군 기지의 소재지이고 47000미국 주일 군대의 반이상이 유구에 거주한다. Ota주장관은 올해 가을 교본용태랑과 면담하여 그에게 유구 인민의 미군 기지에 반대하는 투표 결과를 건네줄 것이지만 교본용태랑은 유구 거주민의 반대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 미군 기지가 유구에 남아 있기를 희망할 것이다.

사실상 교본도 미군 기지를 일본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년 10월 북해도의 작은 군사 지역인 Betsuraicho는 <<축약시보>>에 의하면 거주민이 가두시위를 하여 미군이 그 곳까지 와서 일본군의 사격장에서 사격 연습을 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이유는 거주민들이 유구 소녀가 강간당한 사건이 이 곳에서도 다시 일어날까봐 걱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비록 일본 인민이 유구 거주민의 요구를 매우 동정한다 해도 그렇지만 그들도 절대로 미군이 일본 본토에 주둔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확대된 미일 안보 조약은 일본과 아시아 인민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6. 釣漁台 : 중국은 모욕 받을 수 있는 인민이 아니다

1996년 7월 이래의 제2차 조어태운동은 일본 군국주의 분자가 말해 온 것에 대해 단번에 정신을 차려 홍콩, 대만과 미국, 캐나다의 중국인이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행위에 반대하였다. 마침내 1996년 10월 10일에 중국인이 조어태에 상륙하여 중국 국기를 꽂았다. 이것은 25년 동안 첫 번째로 일본이 조어태를 占用한 시효를 중단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 분자는 스스로 확대된 미일 안보 조약을 후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여 해보고 싶어서 안달하였다. 일본 청년사 단원은 조어태에 올라 등대를 세우고 일본 국기를 세웠다. 일본 외무성은 망령스럽게 조어도는 일본 영토라고 공인하고 일본 보안청의 배들은 오랫동안 대만 어선을 몰아내고 대만 어민들에게 물을 뿜고 페인트를 뿌리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러한 행위는 전구화인으로 하여금 각성과 단결을 하도록 촉진하였다. 홍콩에서 대북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많은 중국인들이 가두시위를 하였으며, 일본 군국주의의 대두를 규탄하고 일본 정부가 등대와 국기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대만 지도자가 일본과 어업권 문제에서 타협하고 주권 문제에서 양보한 것을 방기하게끔 하였다.

일본은 이처럼 張씨臺灣이 방패막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전구화인의 대단결을 야기하였으며, 중화 민족주의의 부흥은 홍콩 인민과 대만 인민이 하나의 수업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일본 군국주의 분자가 생각지도 못한 결과이며 식민지 시대의 精英 이등회 등의 사람도 공개적으로 감히 일본에게 추파를 던지지 못하였으며, 어업권 담판 시에 조어태는 중국 영토라고 재삼 강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일본도 어업권을 다시 대만 어민에게 돌려주어야 하였다.

전구화인의 각성은 미일의 확대된 안보의 여의봉이다.

6. 미국의 패권은 쇠퇴하여 봄이 간다

외교는 내정의 연속이며 미국의 외교정책은 미국 국내 각파의 역량의 요구와 정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보수파와 중간파의 투쟁이다. 미국의 외교는 옛 소련의 모습과 같이 근년에 와서 점차로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다. 베를린 장벽 붕괴 후 미국의 패권적 국면이 덧없이 사라져 간다.

Lawrence Eagleburger 는 부시 때의 副國務卿으로 최근 <<Foreign Affairs>>계간에서 미국 정부가 외교 경비를 다시 삭감해서는 안된다는 요구를 역설하였다. 냉전 시대로 말미암아 더욱이 레이건 대통령 시대의 미국 국방 외교비용의 커다란 증가로 방대한 정부 적자를 조성하였다. 미국 인민은 강렬하게 적자를 낮추어 소비를 줄여서 수지를 맞출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제3당인사 Perrot 와 Kingrich [혁명]의 주요 정견이다.

Eagleburger 가 지적한 것에 따르면 미국은 1996년의 외교 지출은 1984년의 51%로서 1997년 클린턴 대통령 또다시 외교비용을 삭감하려고 한다. 동시에 상원 외교 위원회 주석 赫爾姆斯는 클린턴에게 USIA, AID 와 ARMS CONTROL 기구를 해산할 것을 요구하였다. 1996년 3월 국회는 겨우 타협 방안을 통과시켰는데, 클린턴에게 앞에 말한 3개중에 하나의 기구만을 해산할 것을 요구하고 두 개는 보류하였다. 미국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관에서 중요한 대사관인데 경비 삭감으로 인하여 냉방장치를 없애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아열대의 국가에서는 공조하지 않고서는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데 다만 이것이 유일하게 삭감할 수 있는 항목이었다. Eagleburger 는 이 대사관이 경비 부족으로 인해 유효한 작업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다.

이것은 후기 냉전 시대의 정상적인 현상으로 미국의 패권이 이미 쇠퇴하고 몰락하여 인위적인 의지로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미국 정치 : 보수파와 중간파의 투쟁

레이건 대통령이 무대에 오르고나서부터 미국 정치 형세의 중요한 것은 보수파의 대두이며 공화당의 우파의 草根운동의 흥기와 좌파 및 자유주의파의 사상 혼란과 전군이 전멸한 것이다. 다만 1995년에 있었던 Louis Farrkan 의 100만 흑인 남자의 시위 행진과 1996년의 클린턴선거중의 라틴아메리카 출신 선거민이 이끈 켈기와 전국총공회의 선거에 史溫尼의 당선 및 클린턴 대통령 경선에 전면 개입

은 이러한 정치 형세를 바꾸는 시작이었다.

외교정책에서 주요한 것은 보수파가 정권을 잡고 반공적 신 고립주의자와 신 레이건주의자와 중간파의 윌슨 이상주의자와 늙은이들의 실제파를 포괄하였다는 것이다.

1) Neo - Isolationists 와 Neo - Reganists

신 고립주의자들의 파는 Petrik Buchanan을 대표로 하는 반공적 고립주의자이다. 주요한 군중 기초는 보수파 기독교 초군 운동 인사이다. 그들은 미국이 국제 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며, 중심은 미국 내정 방면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미국이 유럽 연맹 각국에 군비 부담을 하게 하고 일본이 미일 안보의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하여야 하며 아울러 국방, 외교 지출과 연합국의 활동과 비용을 급격하게 삭감할 것을 주장한다. 이유는 유럽과 일본은 다년간 미국이 혼자 군사비용을 부담하여 부유해졌으며 현재 미국은 자신의 경제와 자신의 국민을 돌아봐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이 파의 인사는 비록 항상 반공적 색채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 요구에서는 오히려 비교적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

신 레이건주의자는 분명한 대표 인사는 없다. 그들 중에는 레이건 대통령의 옛날 막료들이 그 안에 있다. 그들은 근년에 와서 미국 정부 예산 중 부단히 국방비 지출을 삭감하기 때문에 압력을 받았는데 주요 인물은 군대의 화기 공업과 군대 인사이다. 이 파의 사람은 중국을 전복하거나 억제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하나의 핵보호 우산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미국은 당연히 군사적 우세로서 민주를 추진하고 다른 사람의 시장을 개방하여야 한다는 것을 임정하고 전면적인 의식 형태의 투쟁과 국방비 지출의 대량 증가를 주장한다. 이 파의 인사는 역사 조류를 위반하고 다시 냉전 시대로 되돌아가는 침병이 되려고 한다.

2) Wilsonian Idealists 와 Old Guard Realist

클린턴 대통령과 그의 막료들은 윌슨 대통령의 이상주의로 자처하며 자신을 민주 자유 이념의 수호자라고 표방한다. 그들은 지금 변함없이 베를린 장벽 붕괴후 미국의 광영을 그리워하며 그것이 전세계 민주 운동의 세 번째 물결이라고 인정한다. 그들은 고립주의를 비판하고 실제파도 비판하며 의식 형태에서의 투쟁과 미국 상품을 쟁취하기 위해 시장을 여는 것에는 특별히 적극성을 가진다. 중국에 대해 이러한 인사들은 도리어 6.4사건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이 대표적인 중국의 민주 운동이라고 인정한다. 그들은 이광요와 미국식 민주를 비판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반대하고 공격한다. 다만 그것은 그들도 진정한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전망에 맡기고, 정책이 동요하여 확실하지 않은 것은 대체로 모험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국방상에서는 국방부장관 페리를 대표로 하는 사람들은 충돌을 방지하고 감소하는 방어적인 국방을 주요 책략으로 하자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미국이 세계에서 지도적인 지위를 방기하지 않는 데 이 점이 고립주의파와 다른 것이다. 페리는 점차로 이전의 소련의 핵무기를 삭감하는데 매우 많은 일을 하였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그는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와 동맹국 관계를 강화하고 ASEAN의 지역적인 회의에 전력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할 것을 주장하고, 중국과는 중국과 군사적인 방면의 전면 대화도 포함하는 전면적인 대화를 할 것을 주장한다. 페리는 미국의 지식인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이전의 대통령 부시와 키신저를 대표로 하는 노인들의 실제파는 미국이 냉전 시대 후기 또는 신 국제 질서 시대에 마땅히 의식 형태의 투쟁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국이 당연히 중국이 경제와 정치 대국을 이룬 것은 불가피한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미중의 3개 公報를 준수하고 중국과 전면적인 대화를 하고 무역과 인권을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노인들의 실제파의 주장은 비교적 진중하여 미국과 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

7. 미국식, 대만식의 급진 정치와 민주

199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Dole의원은 마지막 시간에 클린턴의 사전 계획을 빼내어 클린턴이 올

해 안에 黃建男과 자신의 막료 鄒杰士, Middleton 과 Girobmyer 등의 사람이 대만 인도네시아의 기부금을 접수하는 것을 통과시킨 것을 폭로하였다. 이러한 폭로는 미국 정계, 매체와 미국 국민을 놀라게 하였다. 킹리치 의장은 이미 클린턴에게 대통령 선거 후 적극적으로 일의 진상을 밝히도록 추구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국식 민주적인 경선은 대량의 금전을 필요로 하며, 이미 사람들도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민주와 공화 양당은 모두 선거 경비 개혁 방안이 통과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강대한 금전 정치의 압박 하에서 [臺灣牌]와 중국 정책은 곧 희생양이 된다. <<華爾街月報>>와 <<世界日報>>의 보도에 따르면 황건남은 대만의 지도자로 클린턴의 대중국정책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요 인사이며 대만도 황건남, 오걸사 등의 사람이 기부금을 거두는 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식 금전 정치와 대만식의 금전 정치는 정치 이익 때문에 밀접하게 합작하였다. 이것은 완전히 이러한 [민주]정치의 허위와 가소로움을 반영한 것이다.

클린턴은 [臺灣牌]를 함으로써 대만 지도자와 대만 대자본가의 기부금은 충실하게 그의 선거 자금이 되었다. 이등휘는 클린턴과 그의 막료들을 이용하여 미국의 대중국정책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등휘 등의 사람이 대만에서의 지도적인 위치와 기득권을 보전하였다. 피해를 받은 사람은 중국 인민이며 대만 동포의 장구한 이익도 포함된다.

결론

몸은 중국인이며 몸은 흥기하는 아시아의 한사람으로 우리들은 나날이 낙관적이 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미국과 일본은 모두 다시 냉전 시대로 되돌릴 수 없으며, 이것은 개인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도 미국의 모험 외교와 미국의 전진을 위한 후퇴 일본 군국주의를 선동할 가능성을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우리들은 해협 양안이 모두 중국과 아시아 인민들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출발하고 군사 경비, 외교 경비를 줄여서, [새와 조개의 다툼으로 어부가 이익을 얻지]않게 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들이 공동으로 손을 맞잡고 21세기로 향하여 나아간다면, 그것은 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다 !

연대기 (개략)

대만	일본·아시아
1895	갑오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전하고 “馬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대만을 일본에 할양
1898	대만 총독부,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 “匪徒刑罰令” 반포
	1904 러일전쟁
	1905 러시아 “피의 일요일”, 제1차 러시아혁명 손문 선생님 도쿄에서 중국혁명 동맹회 창립 일본이 조선을 일본의 피보호국으로 편입시킨 “한일협약”(을사보호조약)을 강제도 체결함으로써, 조선에서 항일 민병대 투쟁이 일어남.
	1906 일본이 중국 만주지방에서 “남만주 철로회사” 설립
1910	대만 총독부, “입야 조사 사업” 실시 “원주민 토벌 사업” 시작
	1910 일본에서 大逆 사건 발생(24명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체포 사형당함. 일본은 강제로 조선과 “한·일 합방 조약” 체결.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
1913	羅福星 사건 (辛亥혁명의 영향을 받은 항일 투쟁)
	1911辛亥혁명
1915	西來庵 사건 (辛亥혁명의 영향을 받은 항일 투쟁)
	1914 제1차 세계대전
	1915 일본이 중국의 袁世凱정권에 게 “21조항 요구”를 제출하고 중국의 항일운동의 고조됨
	1917 러시아혁명
	1918 일본이 시베리아에 파병, 러시아 혁명에 간섭

- 1919 제3 인터내셔널 창립
중국에서 “5·4 운동”, 상해 총파업이 일어남
조선에서 3·1운동 일어남.
- 1920 “국제연맹” 창설
- 1921 중국 공산당 창립
- 1921 대만, 의회설치 청원운동 시작
대만 문화협회 창립
(1926년 대만 농민조합 결성)
(1928년 대만 민중당 창립)
(1928년 대만 공산당 상해에서 창립)
- 1922 일본 관동 대지진 발생과 동시에 조선인에 대한 대학살
- 1924 중국 국민당 국공합작 결성
- 1925 상해에서 5·30 참안 발생
조선 공산당 창립
일본, 치안유지법 실시
- 1929 세계 경제대공황 발생
- 1930 霧社 사건 발생
- 1931 2차 霧社 사건 발생
대만 지방자치연맹 결성
- 1931 9·18 사변
조선, 간도 농민 봉기
- 1932 상해 사변 발생
위 만주국 건국
- 1934 조선인민혁명당 창립
- 1937 황민화운동 공식 시작. 창씨개명 실시
, 漢語, 대만어 폐지, 정책 및 국민 총동원 운동 발동
- 1937 7·7 사변 발생, 중국 전면 항일 선포
남경대학살.
- 1938 일본 국가총동원법 실시
- 1939 조선인을 일본으로 끌고 가 노예노동 시킴.
조선인에 강제로 창씨개명
2차 세계대전

- | | | | |
|------|--|------|--|
| 1941 | 1차 고사 의용군 필리핀으로
향함 | 1940 | 독일, 일본, 이태리 삼국 군사
동맹 |
| 1945 | 일본 무조건 항복
대만 광복
연말 陳儀 행정장관 대만 도착 | 1941 | 일본, “대동아 공영권” 제창
태평양전쟁 폭발로 2차 세계대
전 확대 |
| 1947 | 2·28 사건 | 1945 | 미군 오키나와 상륙, 섬 주민
집단 자살
미국,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투
하
일본 파즈탐 선언 받아 들림
유엔 창설 |
| 1949 | 사범대학, 대만대학교 학생운
동 지도부 전면 검거(4·6 사건)
이로써 백색테러 선봉 시작
1 단계 농지 개혁(375 소작료
삭감)
전 섬에 호적 총 조사
계엄령 실시
장개석 대만으로 철퇴 | 1946 | 일본국 헌법 반포,
遠東 군사 재판 시작 |
| 1950 | 백단이 대만에서 활동하기
시작
미 7함정 대만 해협 봉쇄
미국 원조 제공 시작
임서양 선생 체포됨 | 1947 | 국공 내전 백열화
일본에서 맹군 총사령부 2·1
총파업에 금지 명령. |
| 1951 | 2 단계 농지 개혁 (공유지 불
하) | 1948 | 한국 제주도에서 4·3 항쟁 |
| 1952 | 중(대만)·일 협약 체결 | 1949 | 미국 “對대만 백서” 발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일본에서 下山, 三鷹, 松川 사
건 발생하고 “赤狩” 선봉이
일어남 |
| | | 1950 | 한국전쟁
미국에서 매카시즘 선봉
일본, 경찰 예비대 창설 |
| | | 1951 | 샌프란시스코 협약, 미·일 안보
조약 체결
국민당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
권 포기 성명 |
| | | 1952 | 미·일 행정 협정 체결 |

		피의 노동절 吹田 사건	
1953	3 단계 농지 개혁 (농민 토지 소유)	1953	한국전쟁 정전협약 체결 한·미 상호 협방 조약 체결
1954	중(대만)·미 협동 방어 조약 체결	1954	일본 자위대 창설
		1955	일본, 외국인 지문 등록제도 실시
		1956	소·일 공동 선언 발표 일본, 유엔 가입
1957	일본 수상 岸信介 처음 대만 방문		
		1960	미·일 신안보조약 체결, 안보 투쟁 발생 한국, 4월 혁명, 학생 시위로 이승만 정권 타도
		1961	한국, 박정희의 주도로 군사 쿠데타 발동
1964	대만 경제 발전, 공업 총생산액이 처음으로 농업을 초월함		
1965	대만, 일본과 1억 5천만 불의 차관 체결 高雄 수출 공단 창설	1965	미국 북 베트남에 폭격 한·일 기본 조약 체결 일본, 佐藤 수상 오키나와 방문
		1966	중국, 민화대혁명
1968	민주 대만 연맹 사건 陳映眞 체포	1968	세계 각지에서 월남전 반대 시위
1970	대만 독립 연맹 경성 (본부는 미국에 있음)	1970	미·일 안보조약 자동 연장
		1971	“오키나와 반환 협정” 체결, 오키나와에서 협정체결 반대하는 총파업 일어남 중국 유엔에 가입 서씨 형제 간첩 혐의로 체포

- | | | | |
|------|--|------|-----------------------------|
| 1972 | 국민당정권 일본과 단교 | 1972 | 닉슨 중국방문, 상해 공보 발표
중·일 수교 |
| | | 1973 | 김대중 납치 사건
석유 위기 |
| 1975 | 장개석 사망
장경국 본토화 정책 추진
陳映眞 출소 | 1975 | 미국, 월남전에서 철퇴 |
| 1976 | 陳明忠 사건 | | |
| 1977 | 中壢 사건
“인민해방전선” 사건
黨外 민주화운동 활발 | 1978 | 중·일 평화 우호 조약 체결 |
| 1979 | “美麗島”도 잡지 창간
“美麗島 사건” 발생 | 1979 | 중(대만)·미 단교 |
| | | 1980 | 한국, 광주 항쟁 |
| | | 1982 |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으로 아시아 각국 항의 |
| 1984 | 임서양 선생 출소 | 1985 | 일본, 中曾根 수상 공식 신사 참배 |
| 1986 | 민진당 창립
정치수난자 호조회 창립 | 1986 | 일본 국방비 지출 GNP의 1% 초과 |
| 1987 | 계엄령 해제
그 후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 활발해짐. | 1987 | 한국, 민주화운동 고양 |
| | | 1990 | 서승 석방 |

대만 50년대 백색테러 소개

林書揚(노동당 부주석)

1. “백색테러”의 함의

백색테러는 통치자가 국가기구의 폭력수단을 통해 국가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현 체제에 저항·비판을 하는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해 제도와 법령을 초월하여 직접적인 탄압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백색”은 정권의 보수·반동적 성격을 가리킨다.

2. “50년대 백색테러” 시대의 배경

㉠ 국내적으로

중국 대륙에서의 내전은 1949년에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국민당 정권의 잔여 세력은 대만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50년에 복직한 장(蔣)씨 총통의 국민당정부는 타이베이에서 재 출범을 하였고 省 정부는 진성(陳誠)에게 맡겨 대만섬을 최후의 기지로 삼아 이를 고수하려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국민당 정부는 아래와 같은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다.

- (1) 내전에서 패배는 국민당의 지도체계를 거의 와해시켜 버렸다. 군심·당심·민심의 이반으로 패배주의가 만연하고 있었다.
- (2) 2년 전 대만에서 2·28사건이 발생하고 정부와 민중간의 관계가 아직 긴장상태에 있고 2·28사건에 대한 수습 작업이 끝나지 않는 상황하에서 그 잠재적 위기요소는 아직 남아 있었다.
- (3) 내전에서 전면적 승리를 거둔 홍군은 승승장구하여 대만까지 쳐들어와 국민당 정부를 와해시켜 버리고 신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 (4) 국민당정부의 주요 맹방인 미국은 국민당의 절절 패망에 따라 중국 내전에 대한 태도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국민당의 대한 지지가 점점 소극화 된 것이다.(아치슬 보고서)

이상과 같은 상황하에서 타이베이에서 재건을 기도하는 국민당정부로서는 물론 섬내의 정치적 안정이 급선무였다. 48년 당시, 국민당이 아직 내전에서 전면적 패배의 기색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국민당은 국공 투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어 남경(南京)에서 거행한 제1 회 국민대표대회에서 “動員 戡亂時期 臨時條款”을 강제 통과시킴으로써 총통 독재체제의 기초를 확립시켰다.

사실 장씨 정권이 복직하기도 전에 이미 대만에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복직 후의 숙청 작업을 준비해 왔었다.

- (1) 1949년 5월 1일 전 섬에서 호적 총 조사를 실시하였다. (2) 같은 달 20일 군사 계엄을 실시하였다. (3) “國家總動員法”, “懲治叛亂條例”, “動員戡亂時期匪諜肅清條例”, “대만지구 계엄시기 출판물 통제 방법”, “비상시기 인민단체법” 등이 잇따라 제정되었다. 그리고 50년 3월 1일 장씨는 마침내 “전 당 전 민”의 추대 하에서 복직하였

다.

㉠ 국제적으로

(1) 국민당정부의 보호자인 미국에서 1949년부터 미국판 백색테러 선풍이 불기 시작하였다. 미국 대통령은 “충성 조사 법령”을 공포 실시하여 문관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3백만 명에 이르렀고 연방조사국에 입안한 자는 만 사천 명을 넘어 섰고 “충성” 문제로 추방당한 자는 200여명에 달하였고 강제 사직당한 자는 2천여 명에 달하였다. 전체 조사 범위는 당시 전국 취업 인구의 5분의1에 이르렀다.

(2) “시스 간첩안”이 확정되고 메카시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백색테러 숙청 선풍이 정계, 신문계, 심지어 예술계에 불어닥치고 많은 저명 인사들이 박해당했다.

(3) 미·소의 전 후 세계 권력 구조에서의 대립이 점점 명확해졌다. 미국은 전 지구적 반공 전략 배치 구조로써 49년에는 나토 조약, 53년에는 한·미 공동방어협정, 51년에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태평양 안전 조약, 같은 해에 미·일 안전보장조약, 54년에는 중(臺)·미 공동방어협정, 같은 해에 동남아 공약조직, 55년에는 바그다드 공약조직 등등이 있었다.

미국은 자신의 반공 전략 구도의 필요에 따라 각 나라의 당권파의 정치적 자질을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전략 구도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이들 반동정권들도 미국이 주도하는 반동 협약 체계에 들어가는 것을 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경로라고 믿었다. 이에 따라 50년대 많은 개발중 나라의 반동정권은 잇따라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민중의 대한 백색테러를 단행하였다. 도든 민족해방과 민주개혁, 특히 사회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한 운동단체 혹은 개인은 각 지역에서의 백색테러정책의 탄압 대상이 되어 버렸다.

3. 대만에서의 50년대 백색테러의 실태

타이베이 국민당정부는 내전에서 패배로 인해 “공산당을 통탄하고 또 두려워하는” 심리가 극히 심했었다. 이에 따라 50년대부터 반대 인사와 위험 인물로 여기는 사람을 대거 체포하기 시작하였다. 국민당정부는 모든 내전을 반대하고 國共 회담, 국가통일, 평화건설, 민중생활개선을 주장하는 사람을 공산당 간첩으로 몰아 숙청하였다. 그러나 앞에 서술한 것처럼 자신에게 불리한 정세하에서 체포자에 대해 일단 처형하지 못하고 가두어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마침 폭발한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의 대국민당 정책은 급선회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1) 제 7 함정을 대만해협에 투입하여 대만에 대한 중국 대륙의 공격 가능성을 차단시켰다. (2) 즉시 국사 고문단을 파견하여 국민당정권의 군사 방어 능력의 재건을 시도하였다. (3) 경제와 군사 원조를 전면 회복시켰다. (4) 유엔에서 대만의 국민당정부가 중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미국의 對대만정책의 급선회는 국민당정부에게는 기사희생의 기회였다. 이에 따라 50년대 후반부터 전면적인 군사재판이 시작되었고 이른바 백색테러시기에 들어

간 것이다.

㉠. 대만에서의 백색테러의 제도적 특징

(1) 외형상으로는 헌정체제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각종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헌법정신을 파괴시켰고 민중의 정치·경제·사회·심지어 문화와 정신생활의 내용까지 통제하였다.

(2) 본토 시절의 다원 체계의 정보기관을 이용하여 각 기관을 공작과정에서 서로 경쟁하고 감시하게 한다.

(3) 군대 내에 통제 체계를 특히 중요시 하였다. 삼 군의 총사령관은 각자 독자적 법 집행기관을 두고 줄곧 “戰時軍律”로 군대 내의 불온 분자를 차단하였고, 군대 내에 정치 공작 체계, 특히 “보밀 방첩”체계를 중점으로 건재하였다.

(4) 다원적 정보기관 체계의 최고 지휘권은 “動員戡亂時期國家安全會議”에 귀속되어 사실상 장개석이 위임한 장경국 손에 들어가 있다.

㉡. 계엄령 하에 民政, 警政 단행법 및 그 보조적 기구

(1) 간첩 자수 법 (2). 간첩 신고 법 (3). 5戶 연좌법, (4). 국민 신분증 제도 (5).임시호적 등기 규정 (6). 기관, 기업의 인사 안전 규정. (7). 警民 협회 (8). 주민 서비스 센터. 등등이 있다.

㉢. 테러정책의 선전·교육

(1). 대량의 구호, 포스트, 대자보. 예를 들어 “간첩과 내통한 자를 죽이자”, “간첩은 바로 당신 주변에 있다”, “불고지죄는 간첩죄와 같다.”, “간첩 검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등등의 선전은 범람할 지경에 이르렀다. (2). 매일 공중장소에서 처결자속보를 붙이고 신문·잡지에서 “간첩”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3). 대량의 반공 문예 작품, 반공 이론이 모든 매체에 가득 메웠고 심지어 각급 학교의 학생활동을 주도하였다. (4). 당의 기층 조직을 건설하고 서로 다른 체계의 밀고 제도와 민중에 대한 진찰망을 구축하였다.

4. 테러정책의 집행과정

(1). 체포를 집행하는 기관이 경찰, 헌병, 정보기관 등, 많은 뿐만 아니라. 관할 구역을 무시하고 법정 수속도 거치지 않고 수사 기간의 제한도 없이 고문을 일삼아왔다.

(2) 군사재판에 송치한 후에도 기소장, 변호사, 방청객도 없는 상태에서, 때로는 판결문, 항소권도 없는 상태에서, 1심에서 사형을 확정하고 바로 집행한다.

(3). 재판과정은 판사에 심증에 맡기고 범행의 인정, 형량의 결정은 판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피고인의 어떠한 변명도 왕왕 판사의 “증거 부족” 한 마디로 말살당한다.

(4). 형 선고받은 자는 무조건 군인 감옥에 수감되었다. 군인 감옥은 집중 수용소, 勞改 수용소,감옥등 여러 종류의 기구가 있는데 모두 강제 노동과 강제 세뇌를 시키고 있다.. 그 안에서도 “불순분자”라고 인정되는 자는 왕왕 새 죄명을 조작하여 형기를 가중시키든가 극형에 처했다.

- (5). 형기가 만료되더라도 “사상이 아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속 유치시킬 수 있고 그 기한은 없다.
- (6). 만기 출소하더라도 매우 복잡한 보증 수속을 밟아야 되고 보증인이 없는 경우면 출소를 못하게 된다.
- (7). 공포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간혹 조작사건을 만들어 가능한 잠재적 저항 요소를 제거하기도 한다.
- (8). 출소 후에도 여전히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군경 기관에 출두하여 근황을 보고해야만 한다. 장거리의 여행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감시를 맡은 기관은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9). 반란범은 어떠한 감형 조례에도 적용하지 못한다. 출소 후에도 의사,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회사 조직법에 규정한 고위 직무를 맡을 수 없다.

전체적으로 말해서 검거에서부터, 체포, 연류, 모함, 수사, 재판, 복역 그리고 만기 출소까지 반란범에 대한 일괄적 처리 방식은 일반인에 대한 공포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중 어떤 과정에서든 불법적 수단을 서슴없이 써 왔었다.

5. 50년대 백색테러의 피해 상황

- (1). 시간: 49년도 말에서 60년도까지, 테러정책 시기는 약 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특히 50년에서 56년 사이에 가장 집중적이고 참혹했었다.
- (2) 체포 인원 수: 비공식 통계로 약 만 명에 달한다. 이 외에 5만에서 10만 명에 달한다는 설도 있다.
- (3). 처형당한 자의 수도 공식적 통계는 없지만 약 4천에서 5천 명에 이른다고 추정된다.
- (4). 체포당한 자 간의 지역 출신 비율은 대만성 출신과 본토 출신이 3 대 1이고 대만성 출신자 중에서 閩南 출신과 客家출신도 3 대 1 정도이다. 호조회의 자료에 의하면 처형당한 자는 천여 명에 달하고 복역한 자는 3천여 명에 달한다. 이 중 부녀자는 약 백 명 정도이고 원주민은 50명이다. 이 밖에도 많은 사람이 실종, 자살하였다.

6. 백색테러의 결과

- (1). “공포”는 국민의 행동을 제약하는 강력한 요소가 되었고 이로써 국가 사회는 구성원간의 내재적 응집력을 상실하였다.
- (2). 정부는 민중을 가상의 적으로 생각하고 모함과 숙청을 국가권력 유지의 기본 수단으로 삼아 사회를 장기적인 “기형구조, 폭악수단”의 악순환에 몰아 넣었다.
- (3). 국민당정부는 본토의 중국공산당을 최대의 적으로 보기 때문에 반공을 최고 국시로 정하였다. 그 결과 공·농 대중은 “계급투쟁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모함을 피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받은 정당한 권리마저 자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 (4). 테러정책의 잔혹성은 절대 다수의 대만 민중의 민족 감정을 유린하였고 이로 인해 심지어 분열주의 이데올로기 또는 정치 불감증을 조장하였다.
- (5). 엄격한 사상 통제하에서 사회 심리는 장기적인 울분과 폐쇄로 인해 사회에 대

한 합리적 비판체계가 사라지고 자유로운 학술, 예술활동 마저 억압되었고 국제적으로 문화의 사막이라고 놀림 받기도 했다.

7. 만기 출소 수난자의 조직과 활동

만기 출소한 정치수난자는 계엄체제 때에는 엄격한 특별 감시를 받아야 할뿐만 아니라 많은 법령 제한으로 정상적 직업을 구할 수 없고 기본 생존권 마저 박탈당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수난자는 수난자들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행동을 통해서만이 사회생활에서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1988년에 “대만지역 정수수난자 호조회”를 결성하였다. 지금 회원 수는 천 면에 달하였다. 이 호조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수호, 쟁취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고 단지 “기본인식”조항에서 “국가의 통일, 고도의 자치제도, 민주·자유”를 노력의 목표로 규정해 놓고 있다. 8년 동안 여러 차례의 가두시위, 국회 질문, 공청회 소집 및 두 차례의 감시원에 청원 등을 해왔다. 호조회가 정부에 제시한 요구는, (1) 백색테러 시기 모든 정치안건의 자료를 공개하라. (2). 모든 특별 통제를 중단하라. (3). 억울한 안건, 정부 과실 안건과 모함 안건에 대해 즉각 명예 회복과 배상을 하라. (4). 국가 안전법, 특히 그 중의 제9 조 “계엄시기 정치안건 항소권 없음” 조항을 즉각 철폐하라 (5). 수난자 혹은 그 유족 중에 생활이 어려움 자에게 사회보조금을 지급하라 등이 있다. 지금 호조회 회원 중에 많은 사람은 통일운동단체 혹은 노동운동단체에 가입해 있고 특히 반백색테러운동에 여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8. 반백색테러운동에 대한 정부측과 민간에 입장과 반응

(1). 정부측의 입장: a 행정원장이 국회에서 하는 답변과 국방부가 호조회에 보낸 회신에서 모두 백색테러 시기의 숙청의 필요성과 정당성만 주장하고 단지 억울한 안건, 과실 안건의 가능성이 있는 특정 안건에 대해서만 재조사의 용의가 있다고 회답하였다. b. 당시 사건 자료 중 많은 부분이 분실 혹은 폐기 처분됐다고 말하고 있다.

(2). 민간의 반응: a. 일부 민중은 동정을 표하고 민주화 과정에서 2·28 사건 처리원칙에 준하여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b. 또 다른 일부 민중은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에 반공을 최고 국기로 하는 것에 지금도 동의하고 50년대 정치안건이 중국공산당과 관련이 있는 만큼 명예회복은 당치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9. 결론

중국 내전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50년대의 백색테러는, 대만 민중의 좌익 역사의 전승과 미·소 대립의 냉전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건 본질에 대한 분명한 파악을 민중에게 더욱 넓은 정치적 시야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 민주화 문제를 사고하는 데에 있어서도 더욱 심도 있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이다.

핵심적으로 말해서 객관적 사회조직원리가 아직도 계급 모순을 기초로 하고 있는 단계에서 국가 구조는 본질적으로 계급지배의 도구일 뿐이다. 여기서 모든 법률을

한국전쟁이 정전한 후 미국이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을 두려워서 미국에게 협동 방어 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장개석에게 미국의 동의 없이 중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은 약속하라고 했다. 이로서 장개석은 미국에 의해 대만섬에 묶여졌고 양안은 30년 동안 철저히 격리되었다. 대만독립의 온상은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서 설치되었던 것이다.

미국은 대만의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거액의 원조를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을 개방해 주고 가공 수출 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켜 주었다. 이로서 중소기업주, 전문직, 회사 실무자를 위주로 하는 소부르주아계급이 형성되었고 이들은 세계체제의 소비방식과 이데올로기를 고수하고 국민당 독재체제를 반대하는 중견 역량이 되었다. 국민당정부는 미국의 지지 아래 국제적으로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정통성 있는 중앙정부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국민당정부는 이를 빌미로 이른바 “만년국회”(수십 년 동안 선거를 거행하지 않음)를 유지하고 중앙정부의 고위 관료도 거의 본토 출신이었어 본토 사람이 대만 사람을 통치하고 있다는 허상을 일으켰다. 출신 지역간의 모순(省籍 矛盾)은 이로서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1년 대만의 유엔에서의 의석은 중공으로 대체되었고, 이어서 1972년 중·일 수교, 1979 대만·미국 단교하고 국민당정부가 중국의 대표한다는 신화는 파멸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 국민당은 권력을 대만 출신자에게 나누어서 대만 출신자의 불만과 불안을 해소해야만 했다. 대만독립파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인 의식을 선동하여 省籍 모순을 확대시켜 군중을 동원해서 권력 쟁취에 악용하였다. 이러한 수법은 80년대에 커다란 성과를 얻어서 매번 중앙 혹은 지방 선거에서 의석 수는 급속히 증가하였다. 1986년 대만 재야 반대운동의 주력은 “민진당”을 결성하게 되었다.

세계체제의 관점에서 본 대만독립운동의 과거와 미래 (요약)

두계평

번역자 주:

현재 대만의 인구는 2,200만으로 원민주는 약 1~2%를 차지하고 있고, 원민주는 또 여러 부족으로 나누어 각 부족마다 사용하는 모어가 다르다. 이들을 가장 낮은 사회 계층에 속해있다. 그리고 3, 4백년 전에 중국 閩南 지방에서 대만으로 이주해 온 閩南人이 있다. 이들은 대만 주민의 75% (정확한 통계는 아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사용하는 언어는 민남어이다. 그리고 2, 3백년 전에 중국 관동성 지방에서 이주해 온 客家人이 있고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객가어이다. 이상 세 族群은 국민당이 대만에 오기 전에 대만의 살고 있는 족군이다. 1945년의 광복과 1949년 국민이 내전에서 전면 패배하고 대만으로 철수할 때 많은 군인, 관료와 그 가족들이 국민당 따라 대만에 왔다. 이들은 대만省 이외의 중국 본토 각 省 출신이기 때문에 의성인이라고 부려지고 있다. 이들이 서로 다른 省 출신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언어도 각기 다르다. 그러나 이들은 의사 소통을 위해 중국의 보통말(국어)로 정한 북경말을 서툴게 구사하다. 물론 2 세대를 자유롭게 북경말을 구사할 수 있다. 지금 대만에서 공식 언어와는 보통말을 쓰고 있다.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을 민남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을 민남인이라고 하지 않고 대만인라고 부른다. 아래 논문에서 쓰고 있는 “대만인”, “대만인의식”도 이들의 족군의식을 가르킨다.

2차대전 후의 “대만독립”운동은 40년대 후반의 싹이 틀기 시작하고 80년대에 고양하기 시작해서 90년대 초에 정점에 달하였다. 그러나 94년 이후로부터 발전상의 병목에 부딪히고 그후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해서 지금은 전망이 암담하다.

“대만독립”운동의 발전과 세계정치경제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해를 대만 자체에만 국한한다면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Immanuel Wallerstein의 세계체제(world-system) 이론의 방법론과 관점에서 이를 해부함으로써 “대만독립”운동에 대한 보다 전면적인 인식을 제공할 수 있기는 심내 기대합니다.

Wallerstein은 “전체”(totality)에서 인류사회를 파악할 때만 사회 현실(reality)에 철저히

인식할 수 있고, 사회의 전체를 파악하려면 “역사적 사회과학(historical social science)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소위 “역사적 사회과학”은 역사와 사회과학은 분리될 수 없고 상호 융합함으로써 하나의 통일한 연구주제를 이루어야 한다는 학설이다. 그리고 사회과학 내부에서도 기계적으로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등 과목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 Wallerstein은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정치경제학’라는 명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진실한 세계에 대해 유의미한 분석을 하려면 이를 정치, 경제, 사회 3개 (혹은 더 많은) 범주로 분리하고 나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상호 관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구(이러한 분리는 잠시적인 것이라고 해도)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가정해 놓고 있다는 것은 의미한다. 경제는 기존의 제도적 환경에 뿌리를 두고 있고, 정치는 사회경제체력의 표현이고, 사회 구조는 정치경제 압력의 결과이다. (Kaplan 1978 : 7)

세계체제이론은 또 현대 세계를 연구하는 데에는 세계체제이라는 전체를 분석의 단위로 삼아야 하고 국가를 분석의 단위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Wallerstein은 또 이렇게 말하였다.

“각 민족국가는 각자 분리되고 병행된 발전을 이루는 사회가 아니고 한 전체를 구성하면서 그 전체의 구성부분을 반영한다.----특정 국가 내부의 계급모순과 정치투쟁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국가를 세계경제의 전체 구조 속에 넣어야 한다.” (wallerstein 1979:53)

그리고 Wallerstein은 세계체제는 중심(core)--반주변부(semi-periphery)--주변부(periphery)의 3 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중심부 국가는 자본, 기술, 금융, 국가역량에서 우세를 차지하고 주변부, 반주변부에 대한 착취로 자신을 발전시켰다. 중간 위치에 처해 있는 반주변부 국가는 한편으로 중심부의 착취를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부 국가를 착취한다. 반주변부의 이러한 역할은 세계체제의 양극화를 모면하고 나아가 세계체제의 안정에 공헌한다. 중심 국가는 반주변부로 밀려나갈 수 있고, 주변부 국기도 반주변부로 상승할 수 있다. 물론 반주변부도 중심 국가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Wallerstein 1979: 76-89)

본 논문은 이상의 방법과 관점에서 대만독립운동의 발전과정을 해부하고 그 전망에 예측하려한다.

“대만독립”운동 발생의 근원은 2차대전 후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커다란 변화에 있다. 원래 여러 개 중심을 이루고 있는 제국주의간의 주도권 경쟁은 2차대전을 거치면서 영국, 프랑스는 전쟁 피해로 원기를 되찾지 못했고 독일은 분열에 당면해야만 했고 이태리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고 일본은 패허가 된 상태에서 유독 미국이 전쟁 피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력이 날로 신장되어 갔다. 생산, 무역, 금융 등 각 방면에서 다른 나라를 초월하였고 이로써 세계체제는 여러 개 중심 국가의 패권쟁탈(rivalry) 국면에서 미국의 유일 패권(hegemony)체제가 확립되어 던 것이다.(Hopkins and Wallerstein 1982, 52;62) 그러나 30년대의 세계경제 대공황과 파시즘의 범람으로 자본주의는 문제점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와 더불어 전 후 사회주의혁명과 반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고양이 되면서 막기 어려운 커다란 반체제운동(antisystemic movements)이 형성되었다. 이는 각 중심 국가에게 커다란 위협이었다. 특히, 저발전 국가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은 왕왕 사회주의혁명을 기치로 하고 있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 국가들로 하여금 빨간 폭풍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어 전체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유지를 걱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들은 모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수단을 동원해서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세력을 전력 봉쇄(contain)하였고 이로서 40여 년의 냉전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이른바 “대만독립”운동은 사실 바로 이러한 냉전시기에서 미국이 중국의 사회주의혁명과 그가 아시아에 미친 영향을 막기 위해 태어난 산물인 것이다.

일제 항복 후 대만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 의거해서 중국에 귀환되었다. 이는 원래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첫째 국공 내전이 다시 일어나고, 둘째 국민당이 대만을 접수한 후 부패와 폭정의 결과, 민중의 분노는 “2·28” 사건으로 분출되어 국민당에 대해 실망하기 시작함으로써 대만의 귀속 문제는 복잡화되었다.

국민당은 1947년 말부터 패망의 기색이 드러나고 1948년 11월 회해(淮海)戰役에서 패배함으로써 판세는 일방적으로 기울었다. 미국은 국민당의 부패, 전쟁 수행에서의 무능을 통탄하면서 국민당을 포기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대만, 팽호(澎湖)열도가 중공 손에 넘어가면 미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서 대만은 중국에게 귀환해야 된다는 원래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미국국가안전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약칭 NSC)의 문서에 의하면, 미국은 자신의 국익은 위하여 對대만정책의 기본목표는 대만을 미국에 비우호적인 나라 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1948년 말, 미국의 대규모의 경제, 군사 원조에도 불구하고 부패 무능한 국민당은 중국 내전에서 절절 패퇴하였다. 이를 보고 미국은 대만이 중공에 손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 중공, 소련의 반미 전략거점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킨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 따르면:

1. 중국 내정에 간섭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국민당정부가 대만을 접수하는 것은 단지 실질적 점유한 것이고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만의 국제법적 지위는 아직 未定]의 상태이고 일본과의 협약에 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이것이 바로 이른바 “대만 지위 미정론”이다)를 만들어 냈다.
2. 대만 현지에서 장개석정권을 대체할 수 있는 비공산당 華人(중화민족계 사람)을 육성한다. 이에 따라 대만출신 유지들과 밀접한 교분을 유지하고 기회가 오고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 때 대만 자주화운동을 이용한다.
3. 대만이 중공의 공격을 막지 못하였을 때 즉각 대만독립을 선포하고 우방 국가를 통해 유엔에 제안해서 유엔에 의한 대만 신탁통치를 실시한 다음 “대만 인민 자결 원칙”을 통해 국민 투표를 실시한다.

이상의 계획을 바로 2차대전 후 미국의 對대만정책의 주축이다. 그러나 49년 말, 50년 초에 미국은 중국의 민족주의를 이용해 소련의 중국 화북 지방 영토에 대한 야욕을 지적하고 중국과 소련의 단결을 분열시킬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통령(Harry S. Truman)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 성명에서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며 국제적으로도 아무런 의의가 없고 미국은 중국 영토에 대해 아무런 야욕이 없고 무력으로 중국 내전을 간섭할 의사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이 성명이 발표한지 얼마 안돼서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폭발한 것이다. Truman은 즉각 입장을 바꿔서 제 7 함대를 대만해협에 투입해서 국·공의 교전을 막고, 일방적으로 대만의 국제 지위의 결정은 정세가 안정한 후, 또는 일본과의 협약을 통해 또는 유엔의 토론의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 후 중공은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전쟁에서 미국을 과거에 없었던 좌절을 맛보게 되었다. 이에 놀랍고 분노한 미국은 중공을 악마 같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중공을 전력 봉쇄하기를 결심하였다. 그러므로 해서 대만의 전략적 지위는 급속도로 높아갔고 장개석도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게 되었다. 미국 당국은 장개석을 싫어하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실력자를 찾을 수 없었어 계속 장개석에게 군사, 경제적 원조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장개석이 미국의 지지를 받고 과감히 반대자 숙청에 나섰다. “백색테러”가 전면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반공 우선”의 원칙 아래 미국은 장개석의 마구잡이 체포, 학살에 대해 묵인하였다.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했었던 대만독립 분자 黃紀南은 12년 형을 선고받고 분개하게 말하기를 미국정부 눈에는 대만의 태평양에서의 전략적 지위만 보이고 대만 백성은 완전히 안 보인다.

그러나 장개석은 비록 미국이라는 “특효약”을 복용했지만 미국의 압력 하에 1952년 일본과 단독으로 협약을 맺고 “대만 지위 미정론”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1954년, 장개석정권은 한국전쟁이 정전한 후 미국이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을 두려워서 미국에게 협동 방어 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장개석에게 미국의 동의 없이 중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고 했다. 이로서 장개석은 미국에 의해 대만섬에 묶여졌고 양안은 30년 동안 철저히 격리되었다. 대만독립의 운상은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서 조성되었던 것이다.

미국은 대만의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거액의 원조를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을 개방해 주고 가공 수출 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켜 주었다. 이로서 중소기업주, 전문직, 회사 실무자를 위주로 하는 소부르주아계급이 형성되었고 이들은 세계체제의 소비방식과 이데올로기를 고수하고 국민당 독재체제를 반대하는 중견 역량이 되었다. 국민당정부는 미국의 지지 아래 국제적으로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정통성 있는 중앙정부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국민당정부는 이를 빌미로 이른바 “만년국회”(수십 년 동안 선거를 거행하지 않음)를 유지하고 중앙정부의 고위 관료도 거의 본토 출신이어서 본토 사람이 대만 사람을 통치하고 있다는 허상을 만들어 냈다. 출신 지역간의 모순(省籍 矛盾)은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1년 대만의 유엔에서의 의석은 중공으로 대체되었고, 이어서 1972년 중·일 수교, 1979 대만·미국 단교하고 국민당정부가 중국을 대표한다는 신화는 파멸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 국민당은 권력을 대만 출신자에게 나누어서 대만 출신자의 불만과 불안을 해소해야만 했다. 대만독립파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인 의식을 선동하여 省籍 모순을 확대시켜 군중을 동원해서 권력 쟁취에 악용하였다. 이러한 수법은 80년대에 커다란 성과를 얻어서 매 번 중앙 혹은 지방 선거에서 의석 수는 급속히 증가하였다. 1986년 대만 재야 반대운동의 주력은 “민진당”을 결성하게 되었다.

1991년 10월 민진당은 “대만독립강령”을 통과하였고 “대만독립”운동은 절정에 달하였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후 “대만독립”에 대한 요구는 점점 영향력을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 3월에 거행한 총통 선거에서 뚜렷한 “대만독립” 노선을 표방한 민진당 후보 彭明敏은 220만 표에 그쳐 참패를 당했다. 그로부터 “대만독립”세력의 기세는 크게 좌절되었다. 그 후 민진당의 “美麗島”, “新潮流” 2대 파벌과 施明德 등 주요 지도자들은 “대만공화국” 주장은 지지를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발전을 위해 노선 조정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집권 국민당과 결합하고 “대만독립”을 강력히 반대해온 新黨과도 화합을 이루었다. 이는 “중화민국”식의 실질적 독립(중화민국이라는 국가 이름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통일을 거부한다.)으로 비현실적이고 전쟁의 위협까지 초래할 수 있는 “대만공화국”노선을 대체하게 다는 기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선변화는 이른바 “대만독립 강경파”들에게 받아 들릴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그들은 민진당에서 분리해 나가서 “건국당”을 창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민진당을 대만독립을 배반했다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민진당이 “대만독립 강령”을 통과한 직후 1991년 말 제2 회 국민대회대표 선거에서 좌절을 맛보았다. 1996년의 대선에서는 과거의 없어 던 참패를 당하였다. 이는 다수의 대만 민중이 “대만독립”운동에 대해 불신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반영하였다. 민진당의 주류 세력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의식하고 노선변경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집권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만에 화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알았다.

이러한 정세의 변화는 국내·외 요소로 나누어서 판단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 대만 경제는 수십 년 동안의 안정 속에서 지속적 성장을 이루었고 사회경제 질서도 줄곧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장경국이 집권한 후 특별히 본토 출신 간부를 기용하여 “본토화” 정책을 추진하여 재야 반대 세력을 대응하였고 내외의 압력하에서 정치 개혁을 추진하였다. 1988년 장경국이 사망하기 전에 계엄령 해제, 黨禁 해제, 신문 등기 금지조치 해제 등 자유화정책을 실시하였다. 李登輝가 취임한 후에도 반대 세력이 요구하는 “국회 선거 실시”, “省, 市長 직선”, “총통 직선” 등을 비롯한 요구안을 일일이 받아 들였다. 국민당정권은 민주화, 본토화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지금은 완전히 대만에 뿌리를 내렸다. 과거에 국민당정부는 국가 폭력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고 중앙 정권은 대륙 본토 출신 귀족이 독점하고 있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권의 취약성은 “대만독립”운동의 공격 표적이 되었고 “민주화”이라는 명분 아래 신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자유화, 민주화됨에 따라 “대만독립”운동도 “민주화”를 빌미로 정권을 탈취하려는 기도는 점점 무산되었다. 특히 “대만독립”파는 실질적인 다수 폭력을 통해 건국을 가속화하려 하였고 이들은 “대만인 출세하자”라는 구호는 크게 외치고 省籍 모순을 무한적으로 확대하게 하고 “대만인 의식”을 선동하여 이른바 “대만인 감정”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대만독립”운동의 주요 추진 역량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장경국이 사망하고 당시 부총통 이동휘가 총통(臺灣人)에 취임한 후 지배집단 내에 지지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지기

반을 다지기 위해 “대만인 감정”을 이용하기로 결정하고 “민진당”과 야합해서 공동으로 국민당 내의 당, 정, 군 계통의 중국 대륙 출신 당권파를 권력 핵심에서 몰어나게 했다. 이등 휘는 대만의 정치 시장에서 “대만인 표”라고 KS 마크를 얻게 된 것이다. 결국 “대만독립” 파가 오래 동안 시장 개척해 온 마크가 이등휘에게 빼앗게 된 것이다. 이 때 급진적 “대만독립”파는 省籍 차별을 계속 부추기고 대만인 건국 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閩南語를 국어로 정하라고 주장하고 閩南語를 사용하지 않는 자 또는 사용할 줄 모르는 자에 대해 공격을 가하였다. 이들은 심지어 “중국 돼지는 중국으로 물러 가라”라는 욕설을 중국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퍼부었다. 사실 이들은 “대만 독립 파시즘”외에 다름 아니다. 이로 인해 많은 민중들은 반감, 혐오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두려움까지 느꼈다. 왜냐하면 민중들은 그들의 본질은 장쑤 국민당정권과 다를 바 없고 민주화를 빌미로 “대만 독립 파시즘”을 실시하려 할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밖에도 “대만 독립”파 내부의 파벌 싸움과 부패화도 민중의 신임을 잃는 데 한 몫 했었다.

국제적 소요; 중공을 대만이 일단 독립을 선포하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국토를 수호하게 하고 재삼 천명하였고 따라서 “대만독립”은 수십 년 동안 전쟁을 겪지 않았던 대만 민중에게는 장기적인 생활 안정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1979년 중공이 경제개혁, 정치개방을 시작하였다. 이는 자본이 부족하고 기술력도 낮고 연구개발능력마저 결여함으로써 제품 품질의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만의 중소기업에 대해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당시 중국 대륙과 동남아 국가들도 노동집약형 가공 수출 산업에 투입하기 시작했고 대만은 화폐 가치절상과 임금 비용 상승, 그리고 지가 상승 등의 악 조건하에서 국제 경제력이 크게 악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대만 중소자본은 잇따라 중국으로 산업을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대만 본래의 수출 가공 주력 산업인 신발, 우산, 완구, 장식등, 방직품 등은 거의 중국으로 이전하였고 투자로 무역을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거액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최근 몇 년에는 대만의 對중국 무역 흑자는 해마다 100억 불을 초과하였다. 대만의 주요 수출 시장은 이미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고, 중국에 대한 대만 경제의 의존도는 크게 증가하였다. 만약 兩岸이 “대만독립”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면 대만 경제는 분명 붕괴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안이 경제, 문화 교류를 이루면서 수십 년 동안의 격리상태를 종식시킴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감정이 이미 사라졌다는 주장은 저절로 설득을 잃게 되었다. 경제, 문화 관계가 밀접해진 후에 “대만의식론”과 “운명공동체론”의 기초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대만독립” 주장이 날로 객관적 근거를 상실하는 것은 극히 정상적이 일이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미국이 중국과 적대적 상태에 처해 있을 때 미국의 對대만정책은 “대만독립” 또는 “두 개의 중국”을 지지함으로써 양안의 분열을 조장하고 자신의 이익이 챙기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50년대에서 60년대까지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의 국무성장관 도러스와 케네디의 국무성장관 라스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두 개의 중국”을 획책하였다. 그들이 사용했었던 방법은: 1954년 “공동방어조약” 협상 시기와 1954년~1955년, 1958년 두 차례에 거친 金門(중국과 인접해 있는 군사 기지 섬) 포격전 기간에 미국은 양안의 철저한 유대 절단을 위해 장개석정권에게 金門, 馬祖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은 강력히 권유하였다.(이것은 또한 전 민진당 주석 施明德이 제출한 “金門, 馬祖 철수론의 근원이기도 한다.) 그리고 미국은 북경에게 대만독립을 동의해 준다면 미국은 북경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인정해 주고 유엔에 가입 시켜 주게 다고 제의하였다.(Rush 1990: 284-85; Tucker 1990) 그러나 이러한 음모들을 국공 쌍방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이등회가 집권 한 후로부터 점차 “두 개의 중국”을 추진해왔었다. 그는 국민당이 다시 중국에 들어가 집권한다는 환상을 버리고 국회의 전면 선거와 총통 직선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중화민국을 臺灣化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유엔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제사회에서 동시 승인에 얻으려고 했었다. 즉 이등회는 두 개의 독일, 두 개의 한국의 처리 방식으로 대만과 중국의 문제를 처리하려 하는 것이었다.

사실 장개석은 당시 미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 “對日협약”에서 “대만 지위 미정론”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고 또 “공동방어협약”을 체결할 때 미국의 동의 없이 무력으로反攻하지 않게 다고 미국에 약속을 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대만과 중국의 분열을 의미하며 국민당정부는 단지 형식적으로 중국에 대한 주권 주장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십 년 동안 장씨父子는 중국과의 평화 통일을 도모하기를 거부하였고 국제 정세의 변화와 대만 내부의 정치, 경제구조의 필요적 발전으로 국민당정부의 “하나의 중국”론은 날로 그 허구성을 드러내고 나아가 “대만독립”과의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 이등회는 바로 “중화민국식”의 독립(중화민국이라는 국가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독립을 획책한다.)을 이용해서 내적으로는 “대만독립”과의 공세를 해소하고, 외적으로는 “두 개의 중국”을 추진하면서 대만문제를 국제화 시켜 양안이 내전 상태에 있다는 인식을 불시시킴으로써 국제적 간여를 끌어들이게 하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95년대부터 이등회는 민진당과 야합해서 적극적으로 유엔 가입에 힘 써 왔다. 95년 6월에 미국까지 방문에서 “불가능에 도전하겠다”는 암시는 던졌다. 그리고 민진당은 대만 내에서 계속 민중에게 마음놓고 독립을 지지하라고 고취하였다. 민진당은 또 대만이 국제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을 전부 대만이 독립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데에 돌렸다. 이에 더 나아가 무책임하게 대만이 독립을 선포하더라도 배후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감히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전하고 다녔다. 그러나 이등회가 의기양양하게 미국방문에서 돌아오고 아직 승리의 기쁨에 도취하고 있을 때에 중공은 주미 대사를 소환하였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강압해진 군사훈련으로 대만을 위협하여 미국을 경악하게 하였고 대만을 두려움에 처하게 하였고 국제 사회는 목연하였다. 그후로 미국은 비록 대만의 대선 기간에 항공모함을 출동하여 중공에게 경고의 뜻 전달하였지만 얼마 가지 않아 클린턴은 중국의 대한 인식 착오를 인정하면서 국가안전 고문 레크를 파견하여 중국을 방문케 하고 중국을 다시 이해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중국과의 우호를 다지게 하는 의사를 나타냈다. 미국과 중공과의 관계가 1년도 안되는 사이에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1979년 미국과 중공이 수교한 이후 80년대 중공이 경제개혁을 실시하면서 중공과 미국의 관계가 대체적으로 평온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 기간에 미국을 위주로 한 서방 상품과 사상 조류가 대륙에 대거 물려와 지식 청년들 사이에 강한 서방 바람을 일으켰다. 그리고 1989년 마침내 관료의 부패와 인플레이션의 악화로 “천안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중공 내에 친미파 趙紫陽 등은 이로 인해 권력에서 물러나고 친서방파 학생들도 잇따라 체포 혹은 해외로 망명하게 되었다. 이 때 중공은 미국의 평화적 개입을 향의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그후 미국은 계속해서 인권, 경제무역 등 문제를 가지고 중공에게 압력을 넣었고 중공 내의 친미파가 득세하여 미국의 이해에 부합되는 정권이 탄생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江·李체제의 중공은 미국에 대해 비타협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미국은 중합 국력이 계속 신장하고 정치적으로는 불복종 태도를 취한 중공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보수 인사들은 정계, 학계, 신문계에서 “중국 위협론”을 만들어 내어 냉전 시대의 “억제” 정책을 제창하였다. 특히 1990년 소련, 동유럽 공산당정권이 잇따라 붕

피된 후 중공은 미국의 가장 마음이 놓이지 못하게 하는 상대로 부각하였고 중·미 쌍방은 경제, 경제, 군사문제에서 누차 마찰이 생겼다. 그래서 미국은 대만이라는 장기 알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려 했다. 그런데 이등위와 민진당은 중공은 지금 경제건설에 주력해 있고 또 정치적으로는 등소평의 서거를 앞두고 권력계승문제 때문에 쉽게 대만에 무력공격을 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잘 못 생각하고 있었다. 더욱이 민진당의 판단으로는 미국과 중공간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일단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자신의 총 배후 세력인 미국이 분명 파병해서 대만을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상은 바로 왜 1996년 이전에 이등위와 민진당이 감히 호랑이의 수염을 뽑고 누차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중공에 도전장을 보내는 원인이다. 그러나 1996년 중공은 미사일 연습을 강행함으로써 미국, 대만 그리고 국제사회에 미국과의 일 전을 불사하고 “대만독립”을 저지하게 다는 결심을 분명하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국제사회를 아무런 강력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미국은 비록 중공의 억제할 마음이 있으나 중공의 영토 수호 결심의 강력함을 보고 또 유럽, 아시아 나라들이 공동 보조를 취할 뜻이 없음을 보고 만약 중공과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되었다. 과거에 미국은 온 힘을 다해 “두 개의 중국”, “一中一臺”를 추진하려 하는 주요 원인은 중국 내전을 말려 들어가기로 피하기 위해서였다. 지금은 지지세력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더욱더 대만을 때문에 큰 손실을 무릅쓰고 중공과 교전할 필요가 없다. 미국은 이러한 독실을 계산한 후 중공에 대한 억제 정책에서 적극적 교제로 노선변화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직전에 퇴임한 미국무성 장관 크리스·도블은 공개적으로 미국은 미국의 가치관을 중국 대륙에 부가하려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말하면서 중공에 대한 상태 변화를 볼 수 있었다.

먼저, 미국은 오래 동안 대외적으로 참전, 내정 간섭을 해왔고 대내적으로는 큰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과대한 국력 소모로 인해 무역, 재정에서의 쌍 적자가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었다. 70년대부터 미국의 국력은 점점 쇠퇴해갔다. 다른 한편 일본과 유럽의 독일, 프랑스 등은 전·후 미국의 경제원조와 군사비용의 많은 부분이 미국에 전가됨으로써 경제는 빠른 속도도 성장할 수 있었다. 1990년 이후 유럽 시장의 통합으로 경제적 효과는 더욱 높아져 갔다.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전 후의 미국 패권(negemony)에서 미국, 일본, 유럽 삼 두 마차 (Rivalry) 국면에 들어섰다.

다음으로는, 중공이 1979년 후 모택동 시기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대한 도전 시도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접목하는 경제개혁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집권한 이후에 미국과 적극적 화합을 시도하면서 80년대 후반 냉전이 종결될 때까지, 특히 1990년에 들어오면서 소련, 동유럽 공산정권들은 잇따라 무너지고 자본주의의 길을 걸기 시작하였다. 사회주의에 대한 미국의 억제정책이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주의 나라들의 해체로 이제 두 진영간의 대립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공동의 적이 사라진 상태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연맹을 강화할 길이 없어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중공의 경제개혁은 1992년부터 빠른 속도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융합되어 지금은 이미 전체 체제내의 가장 크고 발전이 가장 빠른 시장이 되어 버렸다. 세계의 각 중심부 국가 혹은 반주변부 국가들은 모두 중국 시장을 눈 돌려 보고 있다. 중공은 더 이상 모택동 시절의 자본주의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맹수가 아니라 서로 다투어서 투자하려는 낙원이 되어 버렸다. 각국은 이제 과거처럼 미국과 연합하여 중공을 억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중공의 관계의 악화를 이용하여 중공 내에서 막대한 상업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유럽, 일본 등 각 중심국가 독점자본·다국적기업의 대거 중국 진출에 맞서 미

국의 독점자본도 기선을 잃지 않기 위해 전력 진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 독점자본들은 기선을 빼앗긴 상태에서 미국정부와 중공간의 관계악화로 경제 이익의 상실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그들은 미국정부의 압력을 넣어서 관계개선을 요구하였다. 미국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상황 변화 하에서 과거의 중공 억제정책은 쓴다는 것은 자기손해를 자초하는 것 외에 다름 아니다.

1970년 이전 미국의 억제정책의 영향을 받아 경제가 봉쇄됨에 따라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연결하지 않았고(delinking). 자립갱생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비교적 완벽한 공업체제를 발전해 올 수 있었고 기초과학에서도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여 세계 선진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과학기술 개발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 중국 대륙 시장의 광대함과 기술적 잠재력, 다양한 인력의 충족, 다양한 자원 등으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새로운 중심국가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에 대만을 보면, 기업은 중소형을 위주로 하고 있어 자본과 연구 개발 능력의 부족하고 대기업은 태반 장기적 안목이 부재하여 자본 수요와 위험성이 큰 기술 집약적 산업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구조 조정은 날마다 외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 경제부 장관 趙耀東도 대만의 기업주의 근시안을 지적하면서 그들은 돈 버는 것에만 열중하고 번 돈으로 연구 개발에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통탄하였다(劉玉珍 1995:107-8). 대만에서 중점적 과학 기술 산업 지목되고 있는 정보산업과 반도체 IC를 보더라도 오늘까지 여전히 기술적으로 유럽, 미국, 일본 등 기술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 IC 산업의 가장 중요한 8 가지 재료 중에서 7 가지는 일본의 통제 아래 있고 1 가지는 독일 손에 있다. 이로 보아도 기술에 대한 기초 연구가 부족한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기술 선진 국가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楊丁元, 陳慧玲 1996:202-8). 80년에 들어서면서 기술력 부족과 산업구조 조정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내부 시장의 협소, 토지, 노동력 등 여러 가지 생산 원가의 제고와 정부 효율의 저하, 사회풍조의 부패, 환경·생활 품질의 저하 등등 각종 병폐가 드러나는 상황하에서 대만 경제의 성정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쟁력도 점점 약화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대륙과의 경제적 교류가 없었더라면 대만 경제는 벌써 중도 성장에서 저도 성장으로 전락하고 이에 따로 실업문제와 인플레이션 문제 등 각종 사회적 난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특히, 대만은 정치, 경제 형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울러 이익의 재분배 문제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즉, 한편으로는 임금 노동자들이 더 많은 경제이익의 분배를 요구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가들도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려 하는데 그라나 생산력의 성장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쌍방의 이해 대립은 정치적 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의 자유화, 국제화됨에 따라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기업의 도산, 합병이 점점 늘어나고 빈부격차도 갈수록 심해지고 실업문제도 악화되어 가고 있다. 최근 몇 년에 사회복지에 대한 야당과 민간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정부 재정적자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산업 기술의 제고가 지연되고 생산력의 제고가 이뤄 수 없다면 계급모순은 심화될 것이고 민중의 취업 생활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권을 분명 합법성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주변부 혹은 반주변부 사회에서 누차 심각한 문제로 발전되었다.(Prebisch 1981). 만약 대만은 중국 대륙과 경제 합작을 진행해서 대륙의 각종 자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아마 경쟁력의 쇠퇴로 주변부로 밀려나가 재기하기도 힘들 것이다.

근래에 “대만독립”과는 “대만의 주체성”을 운운하며 중국에 대한 각종 (역사, 문화 포함)

적대와 모멸을 일삼아 왔다. 사실 전 후 대만이 미, 일 등 자본주의 중심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면에서 주체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등화와 “대만독립” 파가 말하고 있는 소위 “보편적 문명 가치”, “인권” 등등은 비판적 사고가 완전히 결여하고 미국 문화 가치를 그대로 받아 들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식 가치관에 굴종하는 노예화 사유이다. 그들을 미국, 일본 등 중심 국가를 숭배, 존경하고 非서구 문명에 대해서는 멸시한다. 그들은 미국이 제3 세계에서 행했던 독재 정권에 대한 지지(대만의 국민당정권도 포함), 쿠데타 활동, 암살 행동, 마약 매매, 그리고 자국 내에 종족 차별, 계급 탄압 등등을 모두 아랑곳하지 않는다. 미국에 대해 그들은 아부뿐이며 그러나 중공,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판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아시아적 가치관”이라고 지적하면서 비웃고 반박하기만 한다. 그들의 이러한 제 3 세계 나라를 무시하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자본주의국가에 아부하는 태도는, 세계자본주의체제 내에서 대만이 처해 있는 위치를 반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에 서술한 것처럼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다음 라운드의 경쟁에서, 그리고 국제정치, 경제 질서가 새로운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만은 과연 미국, 일본에 의존하여 계속 현재의 위치를 유지, 심지어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실사구시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오키나와(沖繩:琉球)와

타이완(臺灣)

킨조치카시(金城睦)

KINJO Chikasi 유구 변호사

1. 머리말

저는 어제 밤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포지엄의 중요행사인 '春祭追悼會'에도, 리세프션에도 참석하지 못하여 대단히 아쉽고 송구스럽습니다.

행사일정을 알면서도 제 시간에 올 수 없었던 것은 항공편 탓도, 저의 게으름 탓도 아닙니다. 사실은 어제 오키나와 縣收用委員會에서 오후 1시부터 5시 넘어까지 있는, 미군용지 강제사용을 위한 제1회 공개심리에 빠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키나와는 미군기지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내외로부터 크게 주목 받고 있지만, 지금의 가장 큰 초점은 미군용지의 강제사용에 관한 공개심리입니다. 약 3,000명의 지주들이 자기들의 땅을 미군기지로 사용케 하는 정부과의 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주의 땅을 억지로 뺏아 미군기지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일본정부(방위시설청 나하那覇 방위시설국)와 대논쟁·대공방이 벌어지는 자리가 수용위원회의 공개심리입니다. 이들 지주들 가운데는 戰後(제2차세계대전 후)부터 50년 동안, 조상으로 물려 받은 땅을 집이나 논밭, 삶과 일의 터전으로 쓰고 싶다고 생각해 왔으나 그 동안 미군기지로 사용되어 온 땅을 되찾으려는 임자도 있으며, 미군기지에 반대해 의식적으러 돈을 추렴하여 미군기지로 쓰이고 있는 땅을 함께 사서 공동소유하고 군용지계약을 거부하는 '한평 지주'라고 불리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평화도시, 생활도시, 문화도시의 건설을 겨냥하는 나하市라는 오키나와현의 서울이되는 自治體도 들어가 있습니다.

첫 공개심리가 때마침 이 모임의 첫날과 같은 날에 열렸으니, 1997년 2월 21일은 역사적인 날로 후세에 기억될 것입니다. 몸이 하나뿐이어서 뜻 깊은 두 행사 가운데 한군데 밖에 가지 못한 것은, 저로서는 아쉬운 구석도 있으나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으니 매우 잊을 수 없는 값진 시간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기회까지 가지게 된 것은 큰 영광이라 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오키나와의 군사기지 반대투쟁의 한 고리인 공개심리에 '한평반전지주회'의

대표간사(세와닌)의 한사람으로, 또한 나하시의 대리인(법률고문)으로 참가하여,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많은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실을 했습니다.

오키나와의 '여러 악(諸惡)의 근원'은 전후 50년 죽 있어온 (미군)기지에 있습니다. 기지가 있기에 오키나와 현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거리 세우기(街つくり)'나 지역개발도 매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는 아시아민중의 인권을 억압하여 평화를 깨뜨리고, 이지역의 민주적, 內發的, 평화적 발전을 해치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2.

이번 모임의 주제와 관련해, 오키나와와 대만의 관계를 중심으로 봐도, 미국의 오키나와 지배, 오키나와의 미군기지가 얼마나 해악의 뿌리가 되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린수양 선생님의 개회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228사건을 비롯한 대만에서의 국민당 정권의 학살과 숙청의 백색테러는 해방후의 대만역사의 가장 음침하고 불행한 사건이지만, 이것은 대만의 이웃에 있는 오키나와하고도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오키나와 사람들도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228사건이 일어난 1947년 2월의 시점에서 오키나와 출신자가 '繼續留用者'로서 110명, 그 가족 188명, 합계 약 300명이 오키나와로 돌아오지 않고 대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228사건 때 공포의 칼날은 가차없이 휘둘러졌습니다.

오키나와戰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어 불타버린 오키나와 전역에서, 戰後 살아남은 오키나와 사람은 미군의 수용소에 갇히고 모든 생산활동이 멈췄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일부 빠져나간 수용자나,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은 자활의 길을 찾아 요나쿠니(與那國), 이시가키(石垣), 미야코(宮古) 섬 등을 본거지로 하여 대만의 물산을 들여오기 위한 '밀무역'船을 내어, 오키나와 대만 사이를 자주 왔다갔다 했습니다. 이들의 오키나와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건에 휘말려 희생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228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일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나, 오키나와의 사건관계자의 실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참모습은 아직도 어두움에 가려져 있습니다. 오키나와와 대만의 관계사를 정력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있는 마타요시(又吉 盛清)라는 나의 벗은, 오키나와출신의 희생자는 적어도 30명 이상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타요시씨에 의하면, 희생자의 한 유가족은 “基隆港에 도착했을 때 국민당 군대에 손발을 묶인 채 연행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식민지하의 基隆社寮島(지금의 和平島)의 오키나와 마을에서 사건을 목격한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 “오키나와 사람가운데서도 희생자가 나왔다. 대만사람과 함께 잡혀 산속으로 끌여가 총살당했다. 암벽에서 바다속으로 던져졌고 기관총사격을 받았다. 산채로 마대에 놓여져 바다속으로 던져졌다. 基隆港은 주검이 등등 떠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처참했다”고 합니다.

3.

또 하나 오키나와와의 관련에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228사건에 이어진 50년대 백색테러가 휘몰아친 가운데, 국민당 정권의 탄압을 벗어나 많은 대만사람들이 오키나와로 밀항해온 점입니다. 그당시의 오키나와는 미군점령하의 꽤 어지러운 상태였고, 밀입국은 비교적 쉬웠던 모양입니다. 그러한 미군점령하의 몰자도 없고 산업도 없는 가난과 혼란이 가득찬 오키나와 였으나, 백색테러가 횡행하는 대만보다는 安住의 땅이었겠지요. 오키나와에 밀항한 이들 대만사람들은 그 뒤에도 백색테러를 두려워해 자기나라 대만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키나와 사회에 정주·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오키나와의 맛있는 중국집 주인이나 주방장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1972년 5월 5일)에 맞추어 일본 국적을 따서 ‘일본사람’으로 오키나와에서 살고 있습니다.

4.

이렇듯이 오키나와와 대만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적으로, 또 사람의 왕래와 교류면에서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대만이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많은 오키나와 사람이 순사, 토목인부, 교원등으로 동원되어 대만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 패전시 대만에 약 3만명의 오키나와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28사건의 遠因을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대만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일본군국주의가 행한 것인데, 가해자측에 끼어 있었던 오키나와 사람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해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키나와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저 자신이 다시 이점을 마음에 새기고, 누우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전후 오키나와는 미국의 세계적인 반공전략속에서 美, 日, 臺, 韓의 군사블록속으로 끌려 들어가, 그 중추적 역할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한 방책으로 오키나와를 일본에서 분리시켜 미국의 軍事 專制政治 지배에 두는 것을 가능케 한 것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이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미일안보조약, 日華(臺)평화조약이 국민당정권을 延命시키고 50년대의 반공독재의 백색테러를 거들어 준 배경으로 되었습니다. 국제조약의 연관성에서 오키나와와 대만, 그리고 50년대 백색테러가 연결되어 있음을 소홀히 보고 넘겨서는 안됩니다.

오키나와의 50년대도, 미국의 군사식민지적 지배하에서 인권탄압, 학대를 혹독히 당한 시대였습니다. 미군기지 건설을 위해 총칼과 불도저의 우격다짐의 토지수탈이 감행되었고, 계속되는 미군범죄로 오키나와 사람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는 빼앗기고 일본본토와의 왕래마저 미군에게 좋지 않은 인물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암흑의 시대' 였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성의 눈으로, 우라사키 시게코(浦崎 成子)씨가, 또 저널리스트이자 감성이 풍부한 시인인 가와미쯔 신이찌(川滿信一)씨 및 타카라 벤(高良 勉) 시인이 후에 보고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오키나와 사람은 이같은 가운데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평화와 자유를 구해 들고 일어나, 하나씩 하나씩 자유와 권리를 따 내어 왔습니다. 이러한 오키나와 민중의 싸움의 역사는, 오늘의 대만의 자유화.민주화 투쟁과 공통되어 있습니다.

6.

저는 1972년 1월, 오키나와의 복귀직전에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계엄령이 실시되어 시내 곳곳 어디라도 총을 든 병사가 지키며 돌아다니는 것을 보니, 미군지배하의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이상한 광경으로 비쳐졌던 것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색테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추모하고 명예회복을 도모하며, 나아가 한국에서 19년 동안 옥중에 있었던 서승씨 등과 함께 한국의 백색테러의 문제규명과 아울러, 日, 琉(沖), 韓, 臺의 국제심포지움이 대만에서 열리니, 오키나와의 투쟁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매우 감개무량합니다. 대만, 한국을 비롯하여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서 지금도 백색테러가 횡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의 존엄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에 사는 우리들은 참된 인간의 존엄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난날을 배우고 오늘의 문제를 밝히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서로 이어지고 힘을 모아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권 지킴이		
등록일	04	18

동북아 심포지움 준비위 참가를 요청합니다

때; 1996년 9월 15일 아침 8시

곳; 서울 코리아나 호텔 2층(시청옆 건너 편)

참가비; 3만원 (개인식사 2만원, 공동부담금 1만원)

참가자격; 이 문안을 받은 단체 대표 또는 관련있는 개인

문의처; 민족문제연구소(969-0226, 964-7818)김봉우

초청자; 동북아 심포지움 준비위원회 사무국

동대문구 회기동 60-133 민족문제연구소 내

행사계획

기간: 1997년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일정

- 2월 21일 오후 50년대 백색테러 희생자 추도모임
(당시 사형장이던 옛 馬場町, 지금의 청년공원에서)
저녁 등록
밤 문화의 밤
- 2월 22일 오전 기초보고 (노암 촘스키 또는 브루스 커밍스, 마사오 미요시중에서)
제1부 냉전과 국가테러리즘의 현대사적 의의
오후 제2부 인권과 국가 폭력장치
밤 역사증언---대만, 오키나와, 한국(장기수.43희생자.광주희생자)
- 2월 23일 오전 제3부 냉전과 개발독재
오후 제4부 냉전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상문제
밤 좌담회 사회; 채영진(陳映眞) 토론자; 호우 샤오 시엔(侯孝賢)
현기영, 학가다 로꾸로(日高六郎, 사회평론가)
- 2월 24일 현장탐방

오전 대북시내 옛 東本願寺(보안사 조사실 터), 六張犁공동묘지
오후 대북근교 鹿窟(50년대 무장투쟁 근거지)

각부의 구성; 보고자는 각부에서 원칙적으로 각국1명, 필요에 따라 홍콩, 미국, 동남아에서 온 보고자를 더하여 3~4명으로 한다. 시간은 각 30분, 그뒤에 토론,질의응답 1시간으로 한다.

일본측 보고자 1부 이노우에 키요시(井上 清-경도대학교 명예교수)
2부 미즈노 다오끼(水野直樹-경도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조교수)
3부 다무라 노리유키(田村紀之-동경도립대학교 교수)
4부 후지메 유키(藤目ユキ-대판 외국어대학교 조교수)

대만측 보고자 陳明忠(夏潮聯誼會 회장) 紀欣(법학박사 국민대회 대표)
曾健民(북경인민대학 박사과정) 王曉派(세신전파학원 교수)
杜繼平(북경인민대학 박사과정) 劉進慶(동경경제대학 교수)
郭承敏(충승대학 교수) 陳玉爾(항포침희대학 교수)

한국측 보고자 제1부 강만길(고려대 교수)
제2부
제3부 서중석(성균관대 교수)
제4부 박원순(변호사)

동북아 심포지움 개최 의의

- 1, 냉전이 이미 끝났다고 하지만 냉전은 실제로 계속되고 있으므로
- 2, 냉전의 의미를 규명하고, 그희생을 밝혀내고
- 3, 냉전에 짓뭇개진 민주적 가치들을 살려내면서
- 4, 냉전을 민주적인 입장에서 소멸시키는 노력을 하고
- 5, 냉전시대 희생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배상을 촉구하고
- 6, 새로운 동북아 민중교류의 틀을 만들어 나간다.
- 7, 특히 지금까지는 지배체제쪽이 국제교류를 독점해 오면서 체제안정에 이 용해 왔으므로 여기에 대응하는 민간차원의 국제교류가 필요한 때이다.

경 과

1995년 가을 서울에서 개최한 국가보안법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에서 대만 정치범인 임서양씨가 한국의 수난자들과 함께 공동활동 하는 과정에서 구체화

되었다. 그동안 연결자 역할을 하던 서승씨가 임현영씨에게 대만과 일본쪽의 준비내용을 전승으로 알려 왔었다. 한국준비모임은 올 7월 23일 그동안 준비 내용을 알고 있던 임현영씨 초청으로 현기영, 서중석, 김봉우, 박원순 등이 모여 한국측 준비위 구성에 합의하고 몇가지 기본사항을 토의 합의 하였다. 그내용은 아래에 쓰여 있다. 2차모임은 8월 21일에 있었다. 참석자는 임현영 서중석, 김봉우, 진관스님, 박원순, 강창일, 백승현등이었다. 이 두 번의 모임에서 합의한 내용, 또는 제기된 문제는 다음에 모두 기록되었다. 모임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북아 심포지움 조직체계

- 1, 전체 총괄기구
대만, 한국, 일본 각10명 합계 30명으로 구성되는 국제실행위원회를 둔다.
- 2, 그 아래에 각국 사무국을 둔다.
- 3, 대만이 행사를 주관한다.

한국측이 준비할 사항

- 1, 국제심포지움 추진주체 형성(다음차례는 제주4,3---50주년을 겸해서)
- 2, 발기인 선정---50-60명선
- 3, 실행위원 선정---10명
- 4, 참가단체선정
- 5, 사무국과 대표선정
- 6, 주제발표자 선정
- 7, 행사 참가자 선정---약50명 정도(일본50명,대만80명,기타20명)
- 8, 문화행사 참가자 선정
- 9, 사건관계 피해자중 참가자 선정
- 10, 사회자 선정---4명
- 11, 기금모금
- 12, 홍보방법 모색
- 13, 여비는 각자 부담(현재가격30만원정도), 숙식은 대만에서 담당
- 14, 중국어 통역자 다수 확보(한,중 통역자가 대만에는 없음)
- 15, 각부 사회자 1명씩 선정.
- 16, 제주행사 기획안 발표
- 17, 언론에 공개하는 시기와 방법문제
18. 공동선언, 행동강령 의견통일... 심포지움에서 발표할 것

지금까지 의논 한 일

- 1, 이름; 동북아 심포지움 준비위라 부른다.
- 2, 대표; 강만길교수를 추대한다.
- 3, 사무책임; 민족문제연구소 김봉우

- 4, 왕복 비행기 비용은 가는사람이 책임진다.(숙식은 대만이 부담)
- 5, 행사문건을 출판하여 출판사로부터 경비를 보조받는 안을 강구하자
- 6, 제주행사에 초청 할 저명인사를 고려하자.
- 7, 상징행사 ㄱ, 흙이나 돌 등을 모으는 일
ㄴ, 한국 춤을 선보이자.
- 8, 참여할 단체 추천을 받자.
- 9, 전체 참여인원이 50명쯤 되도록 하자(대만의 희망)
- 10, 참가가 가능한 사람을 고려하자.(사건관계자라도)-여권소지문제
- 11, 실행위원 추천자; 강판길, 김봉우, 임현영, 현기영, 강창일, 정동년, 김정기등
- 12, 사회 추천자; 강창일, 백영서(한림대교수), 고희범(한겨레신문), 이희옥(한신)
- 13, 강창일교수가 중국어 통역자를 알아본다.
- 14, 발기인 추천은 단체를 통해서 받자.
- 15, 참가가 쉬운 작가회의와 교수 문화인들을 알아보자.
- 16, 단체는 논의를 통하여야 가능하다.
- 17, 이번 대만행에는 일반인들이 가기 어려운 곳도 갈수있다.
- 18, 발제문은 번역을 고려하여 9월말까지 낸다.
- 19, 인권과 국가폭력장치 발제자는 백승현변호사가 민주법연에 알아본다.
- 20, 가능한한 단체대표급이 참가한다.
- 21, 필요한 기금은 참석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대만과 일본에서 만든 문건을 참고용으로 덧붙칩니다.